

맑음과 흐림 사이에서,

굴원의 「어부사」

굴원은...

- ✔ 전국시대 초나라의 정치가
- ✔ 초나라 희황의 신임을 받아 좌도·삼려대부 역임
- ✔ 친진파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유배와 추방을 거듭
- ✔ 「이소」 등을 남긴 『초사』의 대표적 시인

굴원이 이미 쫓겨나 강과 호수가에서 노닐고, 못가를 거닐며 읊조리니 안색은 초췌하고 모습은 마른 나무처럼 야위었다.

어부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는 삼려대부가 아니시오?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소?"

屈原既放 游於江潭
行吟澤畔 顔色憔悴 形容枯槁
漁父見而問之曰
子非三閭大夫歟 何故至於斯

굴원기방 유어강담
행음택반 안색초췌 형용고고
어부견이문지왈
자비삼려대부여 하고지어사

굴원이 말했다.

"온 세상이 다 흐린데 나 홀로 맑고, 모든사람이 다 취했는데 나 홀로 깨어 있으니, 그래서 쫓겨났소."

屈原曰
舉世皆濁 我獨淸
衆人皆醉 我獨醒 是以見放

굴원왈
거세개탁 아독청
중인개취 아독성 시이견방

어부가 말했다.

"성인은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변화와 추이에 능히 어울릴 수 있어야 하오."

漁父曰
聖人不凝滯於物 而能與世推移

어부왈
성인불응체어물 이능여세추이

© 2026 PetraBridge Partners Inc. All rights reserved.

"세상 사람이 다 흐리다면, 어찌 그 진흙을 휘저어 물결을 일으키지 않으시오? 모든사람이 다 취했다면, 어찌 그 지게미를 먹고 박주를 마시지 않으시오? 어찌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결하게 행동하여 스스로 쫓겨나게 하시오?"

世人皆濁 何不淈其泥 而揚其波　세인개탁 하불굴기니 이양기파
衆人皆醉 何不餔其糟 而歠其醨　중인개취 하불포기조 이철기리
何故深思高舉 自見放　하고심사고거 자견방

굴원이 말했다.

"내 듣건대,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의 먼지를 떤 다음 갓을 쓰는 법이며, 몸을 씻은 사람은 옷의 먼지를 떤 다음 옷을 입는 법이라 하였소. 어찌 깨끗한 몸으로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屈原曰　굴원왈
吾聞之 新沐者必彈冠 新浴者必振衣　오문지 신목자필탄관 신욕자필진의
安能以身之察察 受物之汶汶者乎　안능이신지찰찰 수물지문문자호

"차라리 상수의 물결에 몸을 던져 강물고기의 뱃속에 장사 시낼지언정, 어찌 희디흰 결백으로 세속의 티끌을 뒤집어쓸 수 있겠소?"

寧赴湘流 葬於江魚之腹中　영부상류 장어강어지복중
安能以皓皓之白 而蒙世俗之塵埃乎　안능이호호지백 이몽세속지진애호

어부는 빙그레 웃고는 노를 두드리며 떠나갔다.
그리고 노래하기를,

漁父莞爾而笑 鼓枻而去　어부완이이소 고예이거
乃歌曰　내가왈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창랑지수청혜 가이탁오영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창랑지수탁혜 가이탁오족

마침내 떠나가 다시는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遂去不復與言　수거불부여언

> "
>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
>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
> "



© 2026 PetraBridge Partners Inc. All rights reserved.

굴원의 이름은 평平으로, 전국시대 말 초나라 왕족의 후예로서 뛰어난 학식으로 회왕의 신임을 받아 26세에 나라의 정사를 주관하는 좌도左徒에 오릅니다.

굴원은 당시 합종연횡의 대세 속에서 강국인 진나라와의 연합을 반대하는 반진주의자로서 줄곧 제초동맹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친진파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모함을 받게 되고 유배와 해배를 거듭하다가 결국 강남으로 추방됩니다.

어쨌든 추방당한 이유가 부패한 친진파의 참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하가 부패하고 술에 취해 있는데 함께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주장은 일단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굴원의 이유에 대하여 어부는 굴원의 비타협적이고 고고한 처세를 비판합니다. 성인은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사의 변화와 추이에 능히 어울릴 수 있어야 함을 들어 굴원의 심사고거深思高擧(깊은 생각과 고결한 행동)를 나무랍니다.

여기에 대한 굴원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구절은 명구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됩니다.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의 먼지를 떤 다음 갓을 쓰는 법이며, 新沐者必彈冠 신목자필탄관
몸을 씻은 사람은 옷의 먼지를 떤 다음 옷을 입는 법이다. 新浴者必振衣 신욕자필진의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을지언정 깨끗한 몸을 더럽힐까 보냐고 자신의 고고함을 선언합니다. 비타협적 기개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굴원의 비타협적 선언에 어부는 노를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노래하며 떠나갑니다. 이 노래가 이 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부가 읊조리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만 굴원이 스스로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명구로 암송되는 구절이지요.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창랑지수청혜 가이탁오영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창랑지수탁혜 가이탁오족

나는 굴원의 이 시를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모순과 갈등은 어쩌면 인생의 영원한 주제인지도 모릅니다. 이 오래된 주제에 대한 굴원의 결론은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가장 정갈하게 간수해야 하는 갓끈을 씻고 반대로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 것입니다. 비타협적 엘리트주의와 현실 타협주의를 다 같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획일적 대응을 피하고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대중노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오래된 과제를 마주하는 느낌입니다.

— 신영복 교수,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돌베개, 2004)』

PETRABRIDGE
— an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for transactions that matter

주식회사 페트라브릿지파트너스

김 양 태 대표이사 ytkim@amic.kr
조 우 상 이사 wsjo@amic.kr
박 서 영 차장 sypark@amic.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9층
Tel. 02 6953 9930
Fax. 02 6442 9930

© 2026 PetraBridge Partners Inc. All rights reserved.